◈며느리 권씨 열전 7-1

열녀烈女 공인恭人 권씨

검교공파 21世, 권소權紹의 딸, 이안도(李安道, 진성이씨, 통덕랑)의 처, 퇴계 이황선생의 손부

퇴계 종가집

공인 권씨 부부가 건립한 퇴계종택

안동 도산서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268 (토계리)에 소재한 '퇴계종택'(경상북도 기념물 제42호)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이 종택 솟을 대문 위 전면에 '열녀통덕랑행사온서직장이안도처공인안동권씨지려(烈女通德郎行司醞署直長李安道妻恭人安東權氏之廬)'라고 위에 붙어 있다. 대문과 정려문을 겸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그러면 단어 하나를 풀어보면서 퇴계종택에 서린 열녀 권씨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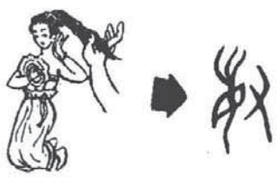
열녀(烈女): 남편이 죽었을 때 처가 따라 죽는 것을 열(烈)이라하는데 거의 남존여비와 가문이기주의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리의 순정(殉情)도 있을 것이다.

통덕랑(通德郎): 통덕랑은 정5품 문관을 의미하고 직급(현재 서기관,소령급)이다.

행, 사온서, 직장(行, 司醞署, 直長): 행(行)은 실제 그 직책을 수행했다는 것이고, 사온서(司醞署)는 고려와 조선의 궁중에서 술의 제조와 공급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직장(直長)이란 정7품(현재 주사급)으로 실무자이다.

이안도(李安道): 열녀 안동권씨의 처이고 이퇴계 선생의 장손이다. 이준(李寯,1523-1583)의 아들(1541-1584)이고 퇴계학맥을 이은 학자이다.

처, 공인, 안동권씨지, 려(妻, 恭人, 安東權氏之, 廬): 처(妻)는 '벼슬이 없는 서민의 아내'를 뜻하지만 정실부인을 말한다. 글자는 여인(女)의 머리칼(十)을 만지는 손(手)을 형상화 한 것도 있지만 약탈혼 시대에 창(十)으로 잡는(秉) 뜻도 있다.



공인(恭人)이란 조선시대의 왕족 및 문·무관의 아내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封爵)된 외명부의 작호인데 정5품의 아내를 의미한다.

려(廬)는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 삼아 지은 '바위집' 또는 '돌집''의 의미이나 자신의 집의 겸양표현이다.

그리고 퇴계의 종택이며 권씨의 시집(媤家)인 퇴계 종택은 동암(東巖) 공인 권씨의 남편 이안도(李安道)가 한서암 남쪽에 지었고, 1715년(숙종 41) 정자인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권두경 건립)을 건축하여 면모를 새롭게 하였고 10세손 고계(古溪) 이휘녕(李彙寧)이 구택의 동남쪽 건너편에 새로 집을 지어 옮겨 살았으나 1907년 왜병의 방화로 두 곳 종택이 다 불타 버렸고, 현재의 퇴계 종택은 1926~1929년 13세손 하정(霞汀) 이충호(李忠鎬)의 주관으로 재건된 것이다.

총 34칸 규모로 5칸 솟을대문과 'ㅁ'자형 정침 영역, 그 동북쪽 약간 뒤로 같은 규모의 5칸 솟을대문과 추월 한수정(寒水亭)으로 이루어진 영역, 그리고 이 두 영역의 뒤쪽에 있는 사당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간난을 딛고 정심正心으로 실천한 휴머니스트

퇴계 이황(李滉,1502-1570)선생이야 워낙 유명인이니 새삼 알아볼 것은 없으나 그의 가정사에 대한 것은 언급하여야 열녀 공인 권씨 이야기에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측면도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은 일반적인 일일 수도 있다. 아버지(이식李埴, 1463-1502)는 몇 달 만에 죽으니 얼굴도 모르고, 첫 부인(김해 허씨, 1502?-1537)은 둘째 아들(이채李採, 1527-1550)을 낳고 죽고, 3년뒤 결혼한 정신병 환자인 권씨 부인(? -1548)도 아들을 낳다가 지금 서울 생활(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립미술관) 중 사망한다. 이 아들도 결혼(며느리 류씨) 후 23살에 심장마비로 신혼 때 죽고 6남 1녀의 형제 중 겨우 형인 이해(李瀣,1496-1545)는 첨지중추부사·대사헌·대사간·예조참판을 지내고 대사헌(현 검찰총장급)에 제수된 훌륭한 형은 귀양가다 죽고 손자인 이안도(李安道 1541-1584)의 아들(이창양, 1569-1570)도 2살 때 죽는다.

퇴계의 모친 춘천 박씨(? - 1537)는 침착하고 당당한 현숙한 부인이었고, 퇴계는 물려받은 재산(1800석, 노비 300명)도 있어서 유복한 편이고 부인 권씨(권질權礩의 딸,1483-1545)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고생은 했으나 그녀와 17년간을 보냈으니 금슬은 좋았다고 본다. 그리고 첫 부인 허씨 사별 후 얻은 첩은 나름 열심히 가사를 돌아보아서 퇴계의 근심을 덜어주었다고 한다.

퇴계 이황의 경敬과 성誠의 정신

첫째 며느리 봉화금씨는 집안이 쨍쨍하여 비록 급제는 했다 하나 이퇴계 집안을 우습게 보아서 금씨들이 이퇴계가 앉았던 자리도 대패로 밀어버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니 진성 이씨 집안 어른들이 분노하여 쳐들어 가자는 걸 겨우 막았다. 후에 그 며느리는 죽어서도 효도한다고 퇴계의 무덤 아래에 묘를 쓰고 그 잘난 봉화금씨들 중 상당수가 퇴계의 문인으로 학맥을 잇는다.

둘째 며느리 류씨 이야기는 기막히다. 아들이 죽고 21살의 청상과부를 짐짓 내쳐서 재혼하게 한 것은 대단한 휴머니즘의 극치이다.

그리고 대장장이 배순(裵純· 1535~1613)을 제자로 삼아 평등사상을 보여주고 이 배순은 퇴계 사후 동상을 만들어 모시고 3년상을 치루듯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증손자이며 종손인 이안도의 자식 이창영을 공인 권씨가 낳고 또 딸을 가져서 젖이 부족하였다. 이에 안동 이퇴계댁 여종 학덕어멈이 출산을 해서 젖이 나오니 유모로 불러 올리려는 걸 퇴계는 단호히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 죽이는가? 배운대로 행하라!'고 하여 끝내 그 증손자는 죽게 된다. 일체경지(一切敬之)였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는 진정한 언행일치의 참 선비였다.

그리고 당시 유학자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이 천명도설(天命圖說)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퇴계와 쌍벽을 이루고 생몰년이 거의 같은 남명 조식(曺植,1501-1572)은 그 성질대로 정지운을 무시하지만 퇴계는 그에게 가르침(서울 중구 가까이 거주)을 주고 정지운이 '고양8현(추강 남효온· 사재 김정국· 복재 기준· 추만 정지운· 행촌 민순· 모당 홍이상· 석탄 이신의· 만회 이유겸)'의 대학자가 되도록 하였고 자신도 이 '천명도설'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성학십도'를 만든다. 본 기자는 늘 고양시 고봉산을 오르면서 그 정지운의 묘소를 들리고 이때 남명 조식을 우선시 하던 느낌을 퇴계와 같이 쌍벽으로 생각하면서 등산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그 퇴계는 율곡과 다른 주리론을 펼치고 기대봉과 이기론으로 논쟁을 하지만 그 온화함은 파격적이다. 특히 부인과 며느리에게 쏟은 정리는 매우 이상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8세에 홀로 된지 2년 뒤에 단양군수로서 기생 두향(杜香, 1552-?)과의 로맨스는 유명하고 그녀의 무덤에 지금도 퇴계의 후손이 절을 하니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공인 권씨와 이안도의 군자의 도

그리고 이안도와 공인 권씨가 혼인 할때는 20세 안팎의 젊은 손자니 이황은 60세 쯤 이었을 것이다. 이때 퇴계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넣어줬다. "부부는 남녀가 처음 만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하며 바르게 행해야 한다. 중용에서 '군자의 도가 부부에서 발단이 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친우나 자식 등에게 보낸 서찰이 천여통 있고 이를 보면 더욱 구구절절하다.

이는 그의 제자와의 상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자 중에는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사람 이함형(李咸亨,1550~ ?, 효령대군 후손, 형조참판)이 있었다. 퇴계는 제자가 순천 집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상을 같이하면서 '나의 부인을 보라. 나도 이렇게 사는데..' 라면서 자신의 처 권씨를 지목하는 말을 하면서 고향집 사립문 앞에서 읽으라며 편지를 건넸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있은 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후에 예의가 있다' 하였으며, 자사(子思)는 말하기를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되나 그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천지의 모든 원리와 직결된다'고도 하였다. (…) 부부의 윤리란 이처럼 중대한 것인데 어찌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한다고 소박할 수 있겠는가. (…) 충고하노니, 자네는 마땅히 거듭 깊이 생각하여 고치려 힘쓰도록 하게나. 끝내 고치는 바가 없으면 굳이 학문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실천한단 말인가." 퇴계는 이듬해 세상을 떴다. 이함형 부부는 친자식처럼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례를 갖추었다.

퇴계 서당

퇴계 이황, 그의 사상은 임란을 거쳐 일본으로 가서 일본 유학의 근간이 되고 훗날 소위 명치유신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래서 만주군이었던 박정희가 1970년 도산서원을 재건하고 일본 금송을 도산서원에 심어서 이를 이동하는 소동도 있었으나 이 또한 이황이 그늘이 얼마나 큰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황이 주자학의 답습자라고 생각하지만 이황이야말로 중국 주자와는 다른 이기론을 주장한 조선의 독자적 이론가였다. 이는 후에 고지식한 율곡 이이 계파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비석이 모든 걸 말해주니, 퇴도만은 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 늦게서야 도산으로 돌아온 진성 이씨의 무덤)뿐이다. 그 흔한 증(贈) 이조판서 이따위는 우수마발(牛溲馬勃, 소오줌 말똥)이라는 것이다.

열녀烈女 공인恭人 권씨 그 신고辛苦의 나날

그러면 이제 열녀 공인 권씨의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그녀는 어린 아들과 시조부 이황을 같은 해에 잃는다. 그리고 1583년 시아버지 이준(李寯,1523-1583,첨정,봉화현감) 과 남편 이안도를 연이어 여읜다. 이안도는 서울에서 조부 덕분에 음서(蔭敍)로 벼슬을 시작한다. 이퇴계가 서세 할시에 이준은 50줄이고 이안도는 30줄의 나이이나 모든 상례는 장손인 이안도가 주재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만큼 조손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끈끈했고 이안도가 퇴계의 실질적 후계자 같은 입장이었다.

그것은 퇴계가 낙향할 때 아들 이준은 벼슬에 나가 있으니 결국 그 수발은 맏손자인 이안도와 공인 권씨가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십여년이 흘러 이안도는 부친 이준의 병환으로 낙향하는데 병수발과 초상치르는 일로 심신이 아픈 지경에 이제 둘째 동생 장사랑 이순도(李純道)마져 사망한다. 이러다가 그 후유증인지 다음해 이안도도 사망하고 나니 아까운 44세였다. 예안의 동계서원(東溪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 "몽재문집(蒙齋文集)"2권이 있다.

이때 김성일(학봉鶴峯 金誠一, 1538~1593)은 몽재와 친우로 지내면서 한이불 밑에 지낸 인연이니 가슴 아파했다. '호학하여 선조의 자취 이으니 (호학승선무好學承先武)

공자에게 자사 있음과 같았네(니구유자사尼丘有子思)'라는 이경욱의 만사(輓詞)가 있다. 이안도가 좀 더 살았다면 그리고 그 아들 이창양이 살았다면 열녀 권씨는 안나와도 되는 일일 것을 세상사 어찌 알리오.

이렇게 되자 공인 권씨도 40대인데 후손이 없으니 그 후사를 잇고자 시아버지 이준의 세아들 중 이영도의 아들 이억(1595-1636)을 양자로 맞아서 대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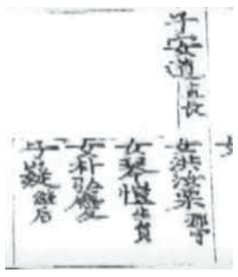
이억의 생년을 보면 알 듯이 권씨의 남편 이안도가 죽은 지 10년이나 지난 뒤이다. 당시 형망제급(兄亡弟及, 형이 죽으면 동생이 뒤를 잇는다.)이라 하니 공인 권씨는 '시조부 퇴계의 가르침이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살아 있으니 지아비의 제사는 가능하고 막내 시동생 이영도도 아들이 하나 뿐이니 다음 아들을 낳으면 꼭 양자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양자가 태어나고 자라서 며느리를 볼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퇴계의 큰아들 이준(李寯)은 자가 정수(廷秀)이고, 1523년에 태어나서 1583년에 죽었다. 기시 첨정(僉正) 벼슬을 하였으며, 숙인(淑人) 봉화금씨와의 사이에서 이안도(李安道), 이순도(李純道), 이영도(李詠道 1559~1637) 등 세 아들을 낳았다. 이준의 묘는 죽동에 있고, 배위인 봉화금씨의 묘는 이황의 묘 바로 아래에 있다. 이황의 둘째 아들 이채는 1527년에 태어나 548년에 죽었다. 묘는 의령 소야동(所也洞)에 있으며, 자손은 없다.

이황의 셋째 아들 이적(1531-1608)은 앞서 말한 어진 첩의 아들인데 자가 정지(靜之)이고 묘는 죽동에 있다. 나주 박씨와의 사이에서 이경도(李敬道) 등 네 아들을 두었다.

공인 권씨는 퇴계가 노비 젖어멈을 보내지 않아서 아들 이창양(李昌陽)이 시름시름 앓다가 두돌이 갓 지나 세상을 떴지만 시할아버지인 퇴계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이 차례로 세상을 뜨고 오래잖아 임진왜란까지 닥쳤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던 권씨는 피난 중에도 퇴계의 저작물을 지키는데 온몸을 바쳤다. 퇴계의 종부로서 그 할 일을 다 했고 이로써 우리는 퇴계의 사상을 더 크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로 온 이억(李嶷,1595-1636)이 자라서 혼인을 하고 그 석달 뒤 곳간 열쇠와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인계하고 소복으로 갈아입고 자진하였다고 한다. 1595년생인 이억이 15세라 하더라도 1610년쯤이니 거의 70세 정도로 추정된다. 묘소는 묘지동(妙枝洞)에 있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왕조에서 친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지 못한 왕

청개(靑皆) **권오진**(權五辰, 부정공파 35세)

-제2대 정종(正宗, 1대 태조의 둘째 아들. 영안대군 방과(芳果))

정종에게는 왕위를 정상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17명이나 있었으나 정종의 동생인 정안대군(태조의 다섯째 아들) 태종 방원(芳遠)의 힘이 워낙 세서 결국 재위한 지 2년 만에 자신의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줌.

-제6대 단종(端宗, 5대 문종의 아들)

단종은 13세에 정순왕후 송씨와 혼인하고 금슬도 좋았으나 어린 나이에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4대 세종의 둘째 아들 세조 유(瑈))의 왕위찬탈 등의 노고를 많이 겪은 탓인지 자식이 생길 법한 나이인 15-16세에도 아이가 없었다. 그 후에는 부인과 떨어져 살다 죽었으니 소생이 있을 리가 없다.

-제10대 연산군(燕山君, 9대 성종 셋째 부인 폐비윤씨 재헌왕후(齊獻王后) 아들)

연산군에게도 왕위를 이을 세자가 있었으나 연산군이 중도에 쫓겨나는 바람에 그 세자 또한 폐위되어 함께 유배되었다. 때문에 연산군의 이복동생 중종(中宗, 9대 성종 둘째 비 정현왕후 유씨 사이 아들 역(澤))이 제11대 왕위에 올랐다.

-제12대 인종(仁宗, 11대 중종 둘째 비 장경왕후 윤씨 아들)

인종은 몸이 병약해서인지 앞서 단종에 비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이 없었다. 그래서 계모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 경원대군 명종 환(恒)이 13대 왕위에 올랐다.

-제13대 명종(明宗, 11대 중종 셋째 비 문정왕후 윤씨 아들)

명종은 아들 순희 세자 부(暊)가 13세의 나이에 요절한 후 소생을 보지 못해 11대왕 중종의 손자인 선조 균(鈞)이 14대 왕위에 오름.

- 제15대 광해군(光海君, 14대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 둘째 아들 혼(琿))

광해군은 왕위를 이을 세자가 있었으나 역시 연산군과 같이 중도에 쫓겨나는 바람에 그 세자 또한 제 명분을 갖지 못하고 왕위계승에서 밀려났다. 광해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조는 선조의 5남 원종의 아들이다. 즉 광해군의 조카가 왕위에 오른 것임.

-제20대 경종(景宗, 19대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 첫째 아들)

경종은 생모 장희빈에 의해 생식능력을 잃었다는 설이 있다. 이유야 어쨌든 생모가 그리 죽은 후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소생도 없이 일찍 죽어 동생인 연잉군 금(昑, 숙종과 숙빈 최씨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가 영조(英祖)이다.

-제21대 영조(英祖, 19대 숙종과 숙빈최씨 둘째 아들 연잉군 금(昑))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는 일찍 죽고 사도세자 또한 영조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바람에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산(祘), 즉 손자가 왕위에 오름.

-제23대 순조(純祖, 22대 정조와 수빈박씨 사이 첫째 아들 공(玧)

순조 또한 영조와 비슷한 경우로 아들인 효명세자가 죽자 효명세자 아들인 헌종이 왕위를 잇게 된다. 이 역시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 경우다.

-제24대 헌종(憲宗, 23대 순조의 손자 환(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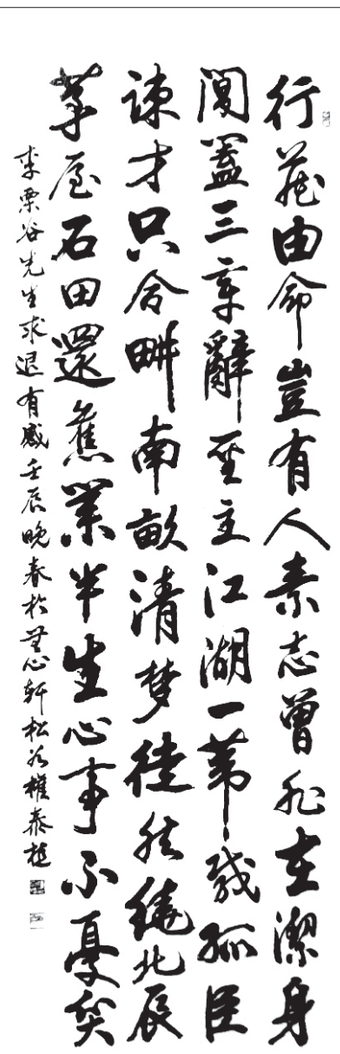
왕위에 오른 헌종은 후궁 숙의 김씨로부터 딸을 하나 낳았으나 이름도 짓기 전에 일찍 죽고 그 외에는 소생도 없이 스물 셋의 나이에 죽어 자기 고조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들(?)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언군의 손자 철종이 왕위를 잇는다.

-제25대 철종(哲宗, 21대 영조와 영빈이씨 사이 추존왕 장조 셋째 아들 원범(元範))

철종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나 모두 요절하고 역시 자기와 같이 사도세자(21대 영조와 영빈이씨 사이 추존왕 장조(장헌세자)의 아들인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 소생 고종이 왕위를 잇는다.

-제27대 순종(純宗, 26대 고종과 명성왕후 민씨 사이 셋째아들 척(拓)

순종은 정비 순명왕후 민씨와 계비 순정왕후 윤씨를 두었으나 불임의 몸이었고 순종이후 왕조가 끊겼기에 왕위에 오를래야 오를 사람이 없었다.



율곡 이이의 구퇴유감

(求退有感: 사직 후의 유감)

행장유명기유인(行藏由命豈有人)
오고가는 사람의 일 운명에 있고
소지증비재결신(素志曾非在潔身)
이내 뜻 몸 사림 근본 아니오
창합삼장사성수(閶闔三章辭聖主)
고운님께 물러감 글월 올리고
강호일위재고신_江湖一葦載孤臣)
시골로 돌아가는 외론 몸일세
소재지합경남묘(疎才只合耕南畝)
변변 못한 이내 재주 갈음(耕) 알맞고
청몽도연요북신(淸夢徒然繞北辰)
임 못 잊는 그린 꿈 대궐 감도네
모옥석전환구업(茅屋石田還舊業)
오막살이 옛 터전 다시 이룩해
반생필사불우빈(半生心事不憂貧)
한평생 가난 함께 즐기워 보리

※이 작품은 2012년 서예대전에서 대상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이사